



DISCIPLESHIP MINIST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새로운 비전, 함께 나누는 소명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사역의
새 시대를 맞이하며

WRITTEN BY
Bishop Héctor A. Burgos-Núñez





온라인 스토어를 방문해 주세요!

제자사역부 자료는 디지털 자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인쇄 책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https://store.UMCdiscipleship.org>

Contents

2	서론
8	Session 1: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 제자들
15	Session 2: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
22	Session 3: 담대하게 사랑하라
29	Session 4: 기쁘게 섬기라
35	Session 5: 용기 있게 인도하라
42	Session 6: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50	부록 A: 회중 실천 가이드/기적의 주일
52	부록 B: 진행자 안내서

A New Vision, A Shared Calling: Embracing a New Era of Ministry as United Methodists.
Copyright © 2025 Discipleship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noted, scripture passages are from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Updated Edition (NRSVUE). Copyright © 2021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서론

연합감리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에서 담
대히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
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연합감리교회 비전 선언문
총감독회와 연대사역협의회 (2025)

연합감리교회는 웨슬리 전통이라는 풍성한 유산에 뿌리를 두고, 하
나님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새로운 사역
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사
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비전, 함께 나누는 소명

모든 의미 있는 운동은 분명하고 신실한 비전에서 시작합니다. 비
전이 없으면 공동체는 방향과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새롭게 제시
된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정의와 연민, 자비와
기쁨, 인간의 온전한 번영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을 상상하도록 우
리를 초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비전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모든 나이와 인종, 성별,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해방의 사랑을 경험하는 세상(요한복음 3:16, 요한계시록 7:9).
-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받고 역량을 갖추는 세상(요한복음 10:10, 에베소서 2:10).
- 정의와 관대함, 그리고 나눔의 삶을 통해 공동체가 변성하는 세상(미가 6:8, 사도행전 2:44~47).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라는 행동의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이 비전을 품을 때, 우리 사역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목적의 핵심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비전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 주며, 어떻게 이 사명을 계속 구현하고 성취해 갈지를 제시합니다.

이 안내서는 여섯 주간의 예배 시리즈의 흐름 속에서 비전을 성찰하도록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된 제자들
-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
- 담대하게 사랑하라
- 기쁘게 섬기라
- 용기 있게 인도하라
-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비전과 함께하는 삶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비전은 전 세계적 연결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방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합니다. 이 비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
-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
-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를 개발하고 준비시키며 자원을 제공하는 일
- 가장 취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일
- 모든 사람과 지구 전체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일하는 일

이 교재는 잠시 멈추어 성찰하고 이렇게 질문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 속에서 이 비전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꾸준히, 함께, 살아 낼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하여

이 안내서는 개인과 소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세션은 선정된 성경 구절에 대한 짧은 묵상과 인용문, 그리고 개인적 발견과 성찰, 의미 있는 소그룹 대화를 끌어내는 질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세션의 중심에는 묵상 기록(저널링)으로의 초대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 통찰을 글로 적는 일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 과정은 삶의 속도를 늦추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움직임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

자인 존 웨슬리는 저널링을 단순한 자기만족이 아닌 성장의 도구로 보았으며, 사람들이 더 단단해지고, 자비로워지며, 자기 성찰적인 존재가 되도록 돕는 수단이라 여겼습니다.

참가자들은 세션 사이에 개인적으로 기록할 수도 있고, 소그룹 시간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선택해 몇 분간 조용히 글을 쓴 뒤, 서로 나누도록 초대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성찰 과정은 보통 정직한 대화와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각 세션은 함께 찬양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찬송을 부르거나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는 일은 우리의 소망과 헌신, 공동의 목적의식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든 찬양하든,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과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걷는 여정에 더 깊이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진행자를 위한 안내

이 교재를 소그룹에서 사용할 경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성찰과 거룩한 대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목회자든 평신도든) 인도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진행자는 성경이나 신학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행자의 역할은 대화를 조심스럽게 이끌어, 모임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고, 참여를 격려하며, 각기 다른 목소리와 경험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전통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은혜의 수단으로 함께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동의 실천과 거룩한 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집니다.

진행자들은 부록 B의 추가 안내와 준비 자료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

새로운 시기를 함께 시작하며, 소망과 기대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삶은 새로워지고, 공동체는 힘을 얻고,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새로운 비전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사명을 더욱 깊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과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함께하며,
헥토르 A. 부르고스-누네스 감독

이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새로운 비전 선언문은 연합감리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다”라는 변함없는 사명을 더욱 온전하게 수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통합적이고 변혁적인 지침으로써 마련되었습니다. 총감독회 주도 아래, 연대사역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정리된 이 비전은 교단이 직면한 공통 질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명이 무엇이라는 질문이 아니라, 변화와 치유, 사명이 새로워지는 이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협력적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다양한 사역 현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치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혁신하는 리더십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비전 선언문의 시의적절한 채택은, 특히 갈등과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공동체들에 희망과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온 교회가 이 비전을 실제 사역 현장에서 구현하도록 구체적인 자료들도 함께 제공합니다.

SESSION 1

예수 그리스도로 빛어지는 제자들

연합감리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에서 담
대히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
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주요 성경 본문

- 시편 119:1~8
- 에베소서 4:11~16
- 누가복음 5:1~11

주제/핵심 개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개인들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상의 실천을 통
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빛어집니다.

은혜의 모임/시작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 비
전의 기초이십니다.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 앞에 두신 방향을 묵
상하기 위해 모인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열어

주소서.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명에 영감을 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도록 힘을 주소서. 사역과 공동체, 그리고 일상에서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질문/대화를 여는 질문들

공부를 시작하기 전, 잠시 생각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성장하거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당신을 부르신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까?
- 오늘날 교회의 목적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나 표현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비전은 신앙 공동체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목적에 집중하고 함께 협력하며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나침반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동력을 잃거나 흩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KJV)이 일깨워 주듯이, “비전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여정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며, 새롭게 정립된 비전을 품습니다. 이 비전은 제자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신앙 공동체가 담대한 사랑, 기쁜 섬김,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살아가도록 부릅니다. 이러한 변화의 영성 속에서 삶은 새로워지고, 이웃과 지역 사회 전체는 활력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하고 치유하는 사랑으로 세상은 새롭게 빛어질 것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연민에 뿌리내리며, 타인의 삶과 우리 주변의 세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말씀에 뜻을 내리다

비전과 제자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앞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되는 영적 형성은 우리가 그 비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하나님과 가까이 걷고자 하는 갈망, 즉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 내면으로부터 빚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마음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일치시키십니다.

영적 형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개인뿐 아니라 교회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매일 응답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형성하시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신실함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명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박국 2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비전)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기다림 속에서도 비전이 우리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10b~11)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복음을 선포하며, 제자들을 불러 정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 공동체적 현실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그들 삶의 현실이 되었고, 그들의 우선순위와 정체성과 미래를 새롭게 빚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은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함께하는 삶으로 자라갑니다.

에베소서 4장 11~16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펼치시는 비전을 제시하며, 영적 형성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이는 교회가 성숙에 이르고,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위해 준비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제자도는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러한 형성은 기도와 성경 말씀, 예배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거듭 응답할 때 시간을 두고 펼쳐집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비전이 결코 사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며 서로를 강건하게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육화’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명확함과 일치, 그리고 소망을 품고 이 공유된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존 웨슬리 인용문

“[참된] 종교는 의로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또한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을 포함합니다… [의로운 이들은] 치우침이나 위선 없이 사랑합니다.”¹

— 존 웨슬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¹ 존 웨슬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설교 7), 케네스 케인 킹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존 웨슬리: 현대 영어로 풀어쓴 표준 설교』(내슈빌: Abingdon Press, 2002), 129-130.

은혜의 속삭임/묵상 질문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아래의 질문들을 개인 묵상 기록이나 소그룹 대화,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활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이끄는 질문을 붙드십시오.

1. 불확실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셨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2.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비전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부르신다고 느끼는 곳은 어디입니까?
3. 시편 119편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을 묘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당신의 여정에 가장 와닿는 태도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4.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따르는 기쁨과 대가를 보여 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따르기 위해 익숙한 것을 내려놓도록 초대받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5. 에베소서 4장은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함을 향해 자라 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성령의 빛임에 열려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6. 지금 이 시기에 당신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사”는 무엇입니까? (예: 담대하게, 기쁘게, 용기 있게, 풍성하게) 그중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초대라고 느껴집니까?
7. 최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다시 빚고 계신다고 느낀 부분은 어디이며, 더 깊은 순종이나 신뢰로 어떻게 그분께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8. 이번 주 누군가가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도록 격려할 방법을 하나 적어 보십시오.

은혜의 메아리/찬송 제안

다음 찬송 가운데 하나를 부르거나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 “Be Thou My Vision”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51장)
- “Take Time to Be Holy”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95장)
- “Open My Eyes, That I May See”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54장)

여정을 위한 은혜/마침 기도

주 예수님, 주님은 우리 비전의 기초이며, 우리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 사명을 강건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공동의 목적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비전에 늘 신실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정의와 자비와 변화를 추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동으로 옮기기

이번 주 하나님의 비전에 응답하는 의미로, 실천할 한 가지 간단한 활동을 선택하십시오.

- 기도: 하나님께서 당신이나 교회를 어떻게 형성하고 계시는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 읽기: 이번 주에 시편 119편 1~8절을 최소 두 번 천천히 읽으며 마음속 어떤 영적 갈망이나 소망을 살펴보십시오.
- 실천: 제자의 다음 단계를 분별하고 있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형성의 걸음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십시오. 가능하다면 그룹 안에서 서로 나누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배하고 배우고 섬기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주목하십시오.

진행자를 위한 메모

참여자들이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실제적인 형성의 사례를 나누도록 격려하십시오.

SESSION 2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제자들

연합감리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에서 담
대히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
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주요 성경 본문

- 시편 16편
- 골로새서 2:6~10
- 요한복음 10:10

주제/핵심 개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목적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의 모임/시작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단지 위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기를 구하기 위해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담대함을
일으키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비전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새롭게
성령을 부으셔서 잠든 마음을 깨우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주

님의 사명을 위한 손길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질문/대화를 여는 질문들

공부를 시작하기 전, 잠시 생각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 한 주 동안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거나 가장 나답다고 느꼈습니까?
- 당신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살아 있다고 느끼게 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회복이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께 배우는 수습자(도제)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시고 자라게 하시며 변화를 만들도록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성령의 능동적인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여정을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변화시키는 길로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1. 깨우심(Conviction) - 성령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게 하시며, 정직과 치유와 변화로 이끄십니다.
2. 변화(Transformation) -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품을 새롭게 빚으셔서, 더 사랑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3. 능력 주심(Empowerment) - 성령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은사와 수단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공동체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성령은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도우시며, 공평과 친절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깊은 유대감으로 형성된 세상을 세워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닿을 내리다

성령은 멀리 계신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새롭게 하며 능력을 주시는 살아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집인 시편 16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11)

성령은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시편 16편은 성령의 역사가 종종 조용히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피난처, 신뢰,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다는 확신이 점차 깊어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 제자들의 증언에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의식하며 자라갈 때, 우리 역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골로새서 2:6~7, 9~10)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으려 유혹받던 교회에, 충만함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 또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중심에는 풍성함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과잉이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를 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라”(요한복음 10:10). 이 풍성한 삶은 단순히 견뎌내는 삶이 아니라, 목적과 기쁨,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특징지어지는 성령이 빚어 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충만함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 안에서 걷는 법을 배웁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르침이나 영감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삶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충만한 삶 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뢰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고요한 확신으로 특징지어지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형성하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며, 여정을 위한 기쁨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존 웨슬리 인용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부어졌고… 또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증거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자녀 된 사랑이 계속 자라났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소망이요, 마음의 힘이요, 영원한 분깃이 되셨다.”²

— 존 웨슬리, “성경적 그리스도교”

은혜의 속삭임/묵상 질문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아래의 질문들을 개인 묵상 기록이나 소그룹 대화,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활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이끄는 질문을 붙들십시오.

1. 시편 16편은 피난처를 찾는 것에서 충만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느 단계에 가장 가깝습니까? (피난처를 찾는 때, 신뢰가 자라는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충만하게 사는 때)
2.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에게 ‘충만함’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3.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기쁨을 약화하는 것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공허하게 하거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그 충만함을 회복시키실까요?

² 존 웨슬리, 「성서적 그리스도교」(설교 4), 케네스 케인 킹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존 웨슬리: 현대 영어로 풀어쓴 표준 설교』(내슈빌: Abingdon Press, 2002), 81.

4. 풍성함은 공동체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나 공동체에서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5. 성령은 단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 내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사이의 차이를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6. 최근 성령께서 당신을 독려하시거나 인도하시거나 격려하신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7. 일상의 선택 속에서 성령의 인도에 마음을 열도록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깨어 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8. 성령께서 당신의 은사를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언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초대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혜의 메아리/찬송 제안

다음 찬송 가운데 하나를 부르거나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 “Spirit of the Living God”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93장)
- “Breathe on Me, Breath of God”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20장)
- “Sweet, Sweet Spirit”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34장)

여정을 위한 은혜/마침 기도

성령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방관자가 아니라 담대한 제자로 세상에 보내 주소서. 기쁨으로 주님의 비전을 살아내며, 겸손히 섬기며, 용기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피조물의 치유를 위하여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소서. 아멘.

행동으로 옮기기

이번 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충만함에 계속 깨어 있도록 돕는 한 가지 의도적인 실천을 선택하십시오.

-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어 기도하거나 성경 읽기
- 정기적으로 멈추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감사드리기
- 신뢰나 기쁨, 더 깊은 믿음으로 독려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주의 기울이기

이 실천들을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삼으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지탱하며 형성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진행자를 위한 메모

시간이 허락한다면, 참여자들이 성령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시거나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던 순간들을 나누도록 초대하십시오.

담대하게 사랑하기

연합감리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에서 **담대히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주요 성경 본문

- 레위기 19:9~18
- 요한복음 13:34~35
- 마가복음 12:28~34

주제/핵심 개념

담대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용기와 연민,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이웃과 낯선 이 모두를 품는 삶입니다.

은혜의 모임/시작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변화시키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려넘치게 하소서. 배경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반영으로 여기며 품고 세워가도록 인도하소서. 공부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혜와 연민과 새로워진 사명감으로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질문/대화를 여는 질문들

- 누군가로부터 담대한 사랑(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인내나 연민, 혹은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담대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 선하고 참되며 생명을 주는지에 대한 깊은 유대감에 뿌리를 두고,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려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랑은 부드럽거나 감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인하고 꾸준합니다. 깊이 경청하고, 변함없이 곁을 지키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기꺼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웨슬리 전통에서 사랑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가로질러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는 힘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장벽을 허물고, 불의에 맞서며,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는 세상을 건설하도록 부릅니다. 담대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서로를 향해 깊이 헌신하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뜻을 내리다

담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름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레위기 19장 9~18절은 사랑이 정의와 관대함, 그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 표현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빚어진 백성을 형성해 갑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때로는 희생적인 연민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뿌리를 둔 공평과 의로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레위기 19:2).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지를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전을 이어받아 더 많이 확장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법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백성을 형성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계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초를 드러냅니다. 복음서에서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을 꼽으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7~39; 마가복음 12:28~34 참고)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와 결정, 모든 사역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라는 거룩한 부름입니다. 담대하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지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그와 똑같은 전심전력의 헌신을 드리는 확장된 사랑의 비전입니다. 이 전심의 사랑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며, 레위기 19장이 설명하는 관대하고 환대하는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우리를 제자로 세웁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용기, 차이를 넘어 경청하는 태도, 외면하는 것이 더 쉬울 때 연민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요한일서 4:19). 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담대함—교만이 아닌 확신—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편의, 안락함을 넘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해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부름이 아니라, 은혜로 빚어진 하나의 헌신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장벽을 허물고 존엄성을 회복하며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하나님의 치유와 정의의 사역으로 이끄십니다. 이 사랑은 공동체를 새롭게 빚고 우리를 익숙한 자리 너머로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두려움이나 편의를 넘어 담대한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존 웨슬리 인용문

“우리가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³
— 존 웨슬리, “거의 그리스도인”

³ 존 웨슬리, 「거의 그리스도인」(설교 2), 케네스 케인 킹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존 웨슬리: 현대 영어로 풀어쓴 표준 설교』(내슈빌: Abingdon Press, 2002), 57.

은혜의 속삭임/묵상 질문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아래의 질문들을 개인 묵상 기록이나 소그룹 대화,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활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이끄는 질문을 붙드십시오.

1. 레위기 19장은 정의와 연민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방식을 묘사합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행동이나 태도 중 오늘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전심의 사랑’ 중 지금 당신에게 도전이 되거나 가장 소망을 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담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초대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4. 당신의 일상에서 담대한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적, 문화적, 영적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장벽을 어떻게 넘어가도록 돕고 계십니까?
5.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 주신 담대한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경험이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6. 담대한 사랑은 종종 위험과 연약함을 동반합니다. 이번 주 성령께서 당신에게 용기 있는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독려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7.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대가를 치러야 하거나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속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8.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담대한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관계나 상황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의 메아리/찬송 제안

다음 찬송 가운데 하나를 부르거나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84장)
- “The Gift of Love”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08장)
-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02장)

여정을 위한 은혜/마침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사랑을 구현하고 주님의 소망을 증언하게 하소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로서 믿음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동으로 옮기기

이번 주 담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 소외된 사람 알아차리기: 직장, 동네, 혹은 교회에서 소외된 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거나, 그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격려하는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 화해를 위한 위험 감수하기: 관계가 서먹해졌거나 멀어진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 연민으로 행동하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시간이나 재정을 나누거나, 그들을 대변하는 옹호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이 행동을 결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소그룹 멤버 중 누군가와 계획을 나누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담대하게 사랑하시는 자로 빚어가시는지 함께 돌아보십시오.

진행자를 위한 메모

참여자들이 성경의 통찰을 구체적인 관계나 공동체의 필요와 연결하도록 초대하십시오.

SESSION 4

기쁘게 섬기기

연합감리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에서 담대히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주요 성경 본문

- 시편 100편
- 마가복음 10:42~45
- 요한복음 13:14~15
- 베드로전서 4:8~11

주제/핵심 개념

기쁘게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은사와 시간과 존재를 기쁨과 겸손, 긍휼의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임/시작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섬김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 속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고 기쁨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임재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드리고, 돕고, 나누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소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을 빚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질문/대화를 여는 질문들

- 누군가를 위해 했던 일 가운데 뜻밖의 기쁨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 다른 이를 섬기며 참된 기쁨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을 보여 준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습니까?
- 당신은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진정한 섬김은 의무감이나 죄책감, 혹은 책임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서 오는 깊은 기쁨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기쁨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시간, 은사, 기술, 존재 자체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단지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존엄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쌓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말씀에 뜻을 내리다

시편 100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초대합니다. 기쁜 섬김은 감사에서 흘러나오며,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태도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며, 우리가 타인 앞에 서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순종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기쁨이 섬김의 보상이 아니라, 신실한 섬김이 자라나는 ‘토양’이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100편 1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나아가고 섬기는 방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응답입니다.

기쁜 섬김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으심으로 이러한 섬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기쁨과 겸손, 사랑을 하나의 신실한 응답으로 모아서 보여준 고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예수님은 또한 마가복음 10장 42~45절에서 참된 위대함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에서 온다고 가르치시며 기쁜 섬김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은 신실한 제자도 안에서 기쁨과 겸손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권위의 자리에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똑같이 사랑과 부드러움과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이 겸손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참된 섬김이 사랑에 의해 형성되고 기쁨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기쁜 섬김은 우리가 모두 타인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 드러질 때 기쁨이 더욱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사가 타인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아낌없이 나눌 때, 그리스도의 기쁨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쁘게 섬긴다는 것은 열린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연민과 소망을 품고 우리 주변의 가장 연약한 이들과 함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때,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게 됩니다. 경청하는 귀, 따뜻한 식사, 혹은 격려의 말 한마디와 같은 평범한 순간들이 기쁜 섬김을 통해 거룩한 순간으로 변화합니다.

존 웨슬리 인용문

“종교의 중요한 규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 이웃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우리 앞에 친히 서 계신 당신을 직접 섬긴 것처럼 받으십니다.”⁴

— 존 웨슬리, “일기”

은혜의 속삭임/묵상 질문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아래의 질문들을 개인 묵상 기록이나 소그룹 대화,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활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이끄는 질문을 붙드십시오.

1. 시편 100편에서 기쁜 섬김의 정신을 묘사하는 단어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2. 마가복음 10장 42~45절에서 예수님은 종의 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⁴ 존 웨슬리, 「일기」, 1740년 8월 21일, 『존 웨슬리 전집』(The Works of John Wesley), 제19권.

3. 우리가 섬길 때 기쁨을 제한하는 태도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롭게 기쁨과 겸손으로 섬기라고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5. 다른 이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어떻게 그와 똑같은 친절을 나눌 수 있을까요?
6. 기쁨으로 섬겼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7. 기쁨 없이 섬길 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다음번에는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겠습니까?
8.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당신에게 맡기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9. 지금, 이 순간 다른 이들에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기꺼이 드리고 싶은 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기쁨과 연민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10. 이번 주 가정이나 교회,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쁜 섬김의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십시오.

은혜의 메아리/찬송 제안

다음 찬송 가운데 하나를 부르거나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00장)
- “Here I Am, Lord”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93장)
-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The Faith We Sing 2171)

여정을 위한 은혜/마침 기도

주님, 섬김의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때 주시는 복에 감사드립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행동하며 항상 주님의 친절을 반영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섬김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섬김의 기회를 겸손과 감사와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동으로 옮기기

이번 주 기쁜 섬김의 한 가지 표현을 선택하십시오.

-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시간, 경청, 격려, 기술, 돌봄—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십시오.
-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고, 당신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조용하고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 만들어 내려 애쓰는 감정이 아니라, 섬김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써의 기쁨에 주목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소그룹 안에서 경험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쁜 섬김을 통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빛어 가시는지 함께 돌아보십시오.

진행자를 위한 메모

참여자들이 ‘의무나 책임감’으로 섬기는 것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의 차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용기 있게 인도하기

연합감리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에서 담
대히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
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주요 성경 본문

- 여호수아 1:5~9
- 시편 27:1~3, 14
- 이사야 58:6~10
- 에베소서 6:10~18

주제/핵심 개념

용기 있는 리더십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의 임재에 뿌리를 두고, 정의에 헌신하며, 겸손하고 신실한 행동으
로 드러납니다.

은혜의 모임/시작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집시다.

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지혜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옵니
다. 주님은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정의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신념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연민으로 행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세상에 빛과 소망을 가져오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질문/대화를 여는 질문들

공부를 시작하기 전, 잠시 생각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 당신의 삶 속에서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준 사람은 누구이며, 그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 옳은 일을 위해 나서야 했던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용기 있게 인도한다는 것은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반대 앞에서도 사랑과 겸손, 자비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참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결코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해방하고 치유하는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용기 있는 리더십은 복잡한 도전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말씀에 뜻을 내리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인도합니다. 이 신뢰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용기 있는 리더십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 속 용기 있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하여 신실한 행동으로 나아가며,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전환기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거듭 약속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느니라”(여호수아 1:9).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용기란 투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상태임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확실성보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두려움과 반대 가운데서도 용기가 하나님의 빛과 구원에 뿌리를 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인내를 길러 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를 만들어 갑니다.

성경적 용기는 개인적 결단에 멈추지 않고 공적인 신실함으로 확장됩니다. 이사야 58장은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불의에 맞서는 행동과 연결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명예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명예와 손가락질과 악한 말을 네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며
네 어둠이 대낮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 58:6, 9~10)

신실함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선포한 비전을 자신의 사명으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18~19)

예수님은 용기 있는 리더십의 청사진을 보여 주시며,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이 무엇인지 몸소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주변화된 이들과 함께 서고, 사람들을 해치는 체계를 직면하며, 절망이 자리 잡은 곳에 소망을 선포하는 리더십입니다.

미가 6장 8절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삶의 방식으로 모아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수동적인 덕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 내야 할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불의에 맞서는 것이고, 자비를 사랑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민을 선택하는 것이며, 겸손히 행하는 것은 자아를 앞세우지 않고 늘 배우려는 자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리더십에 필요한 힘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나오며, 통제가 아니라 신실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10)

용기 있는 리더십은 자기 의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끊임없이 의지함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사랑과 정의와 소망에 뿌리내린 리더십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존 웨슬리 인용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⁵

— 존 웨슬리, “뿌리를 향한 일격”

은혜의 속삭임/묵상 질문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아래의 질문들을 개인 묵상 기록이나 소그룹 대화,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활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이끄는 질문을 붙드십시오.

1. 여호수아 1장 9절과 에베소서 6장 10절은 용기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임을 일깨워 줍니다. 리더십이 위험하거나 외롭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무엇이 당신을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내리게 합니까?
2. 시편 27편은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 미가 6장 8절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중 지금 당신의 리더십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가장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 누가복음 4장 18~19절에서처럼 성령께서 당신이나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를 자유롭게 하도록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5. 리더십이 힘들게 느껴질 때,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⁵ John Wesley, “A Blow at the Root,” Wesleyan Heritage Library, <https://media.sabda.org/alkitab-6/wh2-hdm/hdm0306.pdf#:~:text=A%20BLOW%20AT%20THE%20ROOT,John%20Wesley&text=Who%20ever%20would%20reign%20with,reigning%20in%20him%20on%20earth>

6. 에베소서 6장 10~18절 가운데 지금 이 시기의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7. 하나님께서 더 큰 용기로 인도하라고 부르시는 영역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은혜의 메아리/찬송 제안

다음 찬송 가운데 하나를 부르거나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 “Here I Am, Lord”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93장)
- “Be Strong in the Lord” (Hope Publishing Company, https://www.hopepublishing.com/w1047_be_strong_in_the_lord)
- “Lord, Whose Love Through Humble Service”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81장)

여정을 위한 은혜/마침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과 힘과 겸손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며 주님의 지혜를 일상으로 가지고 나가게 하소서. 신념 위에 굳게 서는 용기, 사랑으로 인도하는 연민,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리더십이 주님의 정의와 자비를 반영하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동으로 옮기기

이번 주 가정이나 교회, 직장, 지역사회에서 용기가 필요한 자리 하나를 기도로 분별하십시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거나, 소외된 이와 함께 서거나, 정의와 연민을 확장하는 행동으로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진행자를 위한 메모

‘용기’를 대담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실한 순종으로 정의하도록 참여자들을 초대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

연합감리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에서** 담대히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웁니다.

주요 성경 본문

- 시편 96편
- 로마서 12:1~8
- 마태복음 28:16~20

주제/핵심 개념

하나님의 자비로 변화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에 참여하며,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자신의 은사와 증언과 섬김을 드립니다.

은혜의 모임/시작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영을 강건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게 하소서. 이 공부 시간이 우리의 제자도를 깊게 하고,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질문/대화를 여는 질문들

공부를 시작하기 전, 잠시 생각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신 자신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정에서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증언과 격려와 동행이 당신의 믿음에 어떤 변화를 주었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에 의해 유지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사랑, 섬김, 리더십, 타인을 돌보는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즉 도제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살아있고 변혁적인 관계를 통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성과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본을 실천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으로 빚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흐름으로 설명했습니다.

1. 선행 은총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우십니다(요한복음 6:44).

2. 칭의 은총 —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로마서 5:1).
3. 성화 은총 — 우리의 삶과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십니다(빌립보서 2:13).

제자는 또한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제자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를 형성하는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관계,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며 함께 성장하라는 초대입니다. 제자도는 가정, 교회, 일터, 이웃, 전 세계에 걸쳐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공유된 여정입니다.

이 초대는 또한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안으로 다른 이들을 영접하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또한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믿음 안에서 양육 받으며,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섬김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말씀에 뜻을 내리다

성경은 제자도가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우리를 밖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방 중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부릅니다. 이는 변화가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찬양에 뿌리를 둔 공적인 증언임을 일깨워 줍니다. 시편 96편은 찬양이 자연스럽게 선포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구원 사역을 자신들 너머에 알리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성소를 넘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언하며, 노래하고, 말하고, 선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제자도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세상을 향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자도는 은혜에서 시작하여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생에 걸친 성장과 변화의 여정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 여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재형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바울은 이 새로워진 삶이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일깨워 줍니다. 변화된 삶은 드러지는 삶으로 이어지며,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은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용기를 반영하도록 형성된 성품으로 빚어집니다.

제자도는 단순히 형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형성은 목적지를 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대위임령은 소수에게 주어진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성된 모든 이의 공동 소명입니다. 대위임령은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즉, 사랑에 의해 형성되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로 유지되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도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 성경 연구, 예배, 자비의 사역을 통해 거룩함 안에서 자라갑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품어주고,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존 웨슬리 인용문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이지 않은 종교를 알지 못하며, 사회적 성결이 아닌 성결을 알지 못한다.”⁶

— 존 웨슬리, “찬송가와 거룩한 시편집 서문”

⁶ 존 웨슬리, 「찬송가와 거룩한 시편집 서문」(1739), 『존 웨슬리 전집』 (The Works of John Wesley), 제14권, 잭슨 편집판(Jackson ed.).

은혜의 속삭임/묵상 질문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아래 질문들을 개인 묵상 기록이나 소그룹 대화, 혹은 두 가지 모두에 활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이끄는 질문을 붙드십시오.

1. 존 웨슬리는 선행, 청의, 성화 은총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도 여정에서 이 은혜의 리듬 중 어떤 것이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며, 그것이 당신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2.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열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말하고, 선포하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예배와 증언이 하나로 만나는 것을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3.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변화된 삶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섬김으로 드러진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은사는 무엇이며, 그것이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증언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4.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에 계속 깨어 있도록 돕는 실천이나 선택은 무엇입니까?
5. 마태복음 28장 19~20절은 제자들이 단지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보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당신의 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이 대위임령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6.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이 제자로서 당신의 여정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적어 보십시오.

7. 최근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 태도, 혹은 행동을 재형성하고 계신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의 신앙 이야기를 증언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영접하며, 그들이 섬김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메아리/찬송 제안

다음 찬송 가운데 하나를 부르거나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 “Take My Life, and Let It Be”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99장)
- “Go, Make of All Disciples”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71장)
- “Send Me, Lord”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97장)

여정을 위한 은혜/마침 기도

사랑의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고 주님의 소망을 증언하게 하소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로서 믿음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보내 주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동으로 옮기기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이번 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역에 참여할 한 가지 방법을 기도로 선택해 보십시오. 당신의 은사나 목소리, 혹은 재물을 드려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타인을 섬기십시오. 여기에는 당신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것, 누군가의 부르심을 격려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 실천에 헌신하는 것, 혹은 전 세계에 제자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공동 사명의 표현인 기적의 주일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신실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진행자를 위한 메모

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를 찾도록 독려하십시오.

회중 실천 가이드/ 기적의 주일

이 선택 페이지는 회중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간단하게 다음 단계를 진행자에게 제공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다음 *을* 위해 기도하도록 회중을 초대하십시오.

- 전 세계에 연결된 연합감리교회 공동체
-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에서 섬기는 선교사, 목회자, 지역 지도자들

헌금에 집중하기

다음 가운데 *하나*를 권면하십시오.

- 신학 교육을 위한 매월 정기 헌금 약정
- 청소년이나 어린이 사역의 모금 활동

이야기 나눔에 집중하기

연회나 세계선교부(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에서 지도자 양성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 사례를 하나 소개하십시오. (적절한 이야기를 진행자가 추가한다.)

섬김으로의 초대

회중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 전 세계 파트너를 위해 기도하기
- 선교사들에게 격려 편지 쓰기
- 문화적 맥락과 선교 우선순위에 대해 배우기

진행자 안내서

진행자는 기도와 성경 탐구, 성찰과 행동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소그룹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진행자가 소그룹 경험을 심화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유형의 준비를 다룬 자료 링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기술적/안전 관련 준비: 공간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이동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교회나 가정,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모일 때 새로 온 이들을 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아래에 언급된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영적·신학적 준비: 가르침은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이끄는 영적 은사입니다. 이 안내서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모임을 인도하는 일이 진행자에게 의미 있었다면, 아래 자료를 통해 가르침의 은사와 사역을 더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은 실제적인 책임이자 영적 실천입니다. 진행자는 성경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참여자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빚으시고 부르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아래 지침은 이 공부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진행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대화의 장 유지하기

진행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토론의 흐름과 분위기, 모임의 공동 목적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포함합니다. 진행자는 그룹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세션 주제에 집중하도록 돕고, 동시에 참석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신실한 진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강요 없이 참여 격려하기
- 말하기뿐만 아니라 침묵을 위한 공간 만들기
- 다양한 관점과 경험 존중하기
- 대화가 주제에서 너무 벗어날 때 부드럽게 되돌리기

진행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합의에 이르도록 만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종 가장 신실한 사역은 하나님과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적 준비

모임 환경은 소그룹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공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이동이 쉬우며 환대하는 분위기인가?
- 특히 새로 온 이들을 환대하는 마음을 전하는 환경인가?
- 모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준비하였는가?

추천 자료

“신앙 형성을 위한 환경 체크리스트”

이 자료는 교회, 가정, 온라인 공간에서 신앙 형성을 위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https://www.umcdiscipleship.org/articles/settings-forfaith-formation-checklist>

영적·신학적 준비

진행은 기도과 성찰을 기초로 합니다.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진행자는 해당 세션의 성경 본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무엇이 마음을 움직이고 도전을 주며, 더 깊은 묵상으로 초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준비는 진행자가 전문 지식이 아닌 ‘깨어 있음’에서 인도하도록 도와줍니다.

웨슬리 전통에서 가르치고 대화를 이끄는 일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영적 은사로 이해됩니다. 진행자는 자신 역시 배우는 자로 남아 있을 때 가장 신실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추천 자료

“영적 지도자 및 신학자로서의 교사”

이 자료는 가르침을 영적 리더십의 한 형태로 탐구하며, 신학과 제자도, 성령 의존에 뿌리를 둔 진행을 설명합니다.

<https://www.umcdiscipleship.org/articles/teachers-asspiritual-leaders-and-theologians>

모임 중에

다음은 염두에 두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시간이 빠듯해 보여도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열고 닫기
- 성급히 답을 내리기보다 성경이 대화를 이끌도록 맡겨두기
- 질문을 반드시 지켜야 할 요구사항이 아닌 길잡이로 활용하기
- 모임의 에너지와 필요에 따라 속도 조절하기

신실한 진행은 완벽함보다 ‘함께 있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마지막 권면

진행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공동체의 공유된 삶이 은혜의 수단임을 신뢰하며, 신실한 대화가 세상을 위한 제자를 빚어 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 주고 돌보아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의 공동 사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감독 약력

헥토르 A. 부르고스-누녜스(Héctor A. Burgos-Núñez) 감독은 치유와 변화라는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제자 양성, 영적 형성,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확고한 헌신으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르고스-누녜스 감독은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웨슬리안 유산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의 필요에 신실하고 창의적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회중들이 영적 실천을 심화하고, 공동체 삶을 강화하며, 일상의 구체적인 방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민을 구현하도록 격려합니다.

정의에 대한 열정을 품고, 부르고스-누녜스 감독은 취약한 공동체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용기와 겸손과 연민으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섬기는 ‘섬김의 리더’를 길러내는 사역을 지지합니다.

그는 연합감리교회가 다음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계적인 운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과 정의를 나누는 제자를 양육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 된 교회
- 영적으로 생동감 있고 시대를 거스르며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 개인적·사회적 경건에 헌신하며 다양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하는 교회
-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 환대하는 세대 통합적 신앙 가족

- 사명 중심적이고 기민하며, 창의적이고 회복력 있는 몸—세계적인 범위를 지니면서도 각 지역 맥락에 깊이 뿌리내린 선교 공동체

부르고스-누녜스 감독은 2022년 11월 4일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서 열린 동북부지역총회에서 감독으로 선출되어, 연합감리교회 동북부 관할구 최초의 히스패닉-라티노 감독이자, 푸에르토리코 출신 감독이 되었습니다.



DISCIPLESHIP MINIST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제자사역부 자료는 디지털 자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인쇄 책자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https://store.UMCdiscipleship.org>

1908 Grand Avenue
Nashville, TN 37212
UMCdiscipleship.org
877.899.2780
info@UMCdiscipleship.org

DM_2602-KR